

#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덕양노인  
종합복지관



## 행복 주파수



Ever Green  
라디오 방송단

2015년 10월 첫 방송을 시작한 'Ever Green 라디오 방송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방송단으로,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노년을 모토로 시작되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관내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은 유튜브로 진출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23년,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Ever Green 라디오 방송단'을 만나봤다.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니어 스타>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 김숙자 1기, 81세, 정왕동

저는 마음의 쉼터라는 콘셉트로 방송하고 있어요. 계절, 날씨, 힐링 같은 것들이 제 방송의 주요 소재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후 주변에서 "너는 그 나이에도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냐, 활동적이냐"는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방송이 제 건강의 비결이죠. 대본을 직접 써야 하니까 좋은 글이나 음악을 들으면 꼭 저장해둬요.



### 2015년 첫 방송, 9년 차 장수 방송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2014년 평생교육과 한살매 프로그램 반장을 대상으로 어르신 리더 그룹을 조직화하여 '행복한 신노년'이라는 타이틀로 캠페인 활동과 자조 모임을 진행했다. 이 중 'Ever Green 라디오 방송단'은 2015년 10월 노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첫 방송을 시작했다. 현재 'Ever Green 라디오 방송단'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숙숙 회장은 2017년 2기 출신으로 2022년 12월 회장직을 맡아 방송단을 꾸려가고 있다.

"제 꿈이 아나운서였는데요. 주변에서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해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두 명의 DJ가 방송했지만, 지금은 한 명의 DJ가 방송하고 있고 네 명의 DJ가 번갈아 진행하고 있어요. 시니어들이 알면 좋은 정보들, 건강 상식, 좋은 시나 글귀, 힐링, 음악 등 다양한 소재가 있는데 저는 주로 키오스크 사용법이라든가 OTT 채널 같은 정보성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대본도 직접 쓰고 진행까지 하느라 쉽지 않지만 배우는 즐거움이 더 크답니다."

방송단원은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선진 기관 견학, 라디오 전문 교육 수료, 집단 프로그램, 신노년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 월 1회 자조 모임, 매년 총 6회의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발음 연습, 방송언어, 대본 작성 등의 주제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다.

### 활기차고 즐겁게! 우리 이야기를 전해요

'Ever Green 라디오 방송단'의 서포터로서 영상 편집과 업로드 등을 담당하는 신채원 사회복지사는 시니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공감과 소통의 방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ver Green 라디오 방송단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남달라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만둔 분이 많은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분들은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노년상을 만들어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니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